

2024년 3월호(제 231호)

소중한사람들

봄맞이

죽은 듯
새까만 나무에서
산수유, 개나리, 목련, 벚꽃...
어찌면 이렇듯
고운 꽃들이 피어날수 있을까

나무가 긴 겨울
눈을 맞으며 떨고 섰다가
이제야
눈을 가슴으로 안아서 일거야
흠이 따뜻해 진거야

나도
눈 비 맞아
오랫동안 가슴에 맺힌
미움, 분노, 절망을 버려야지
그것들을 가슴으로 안아야지
사랑, 아해, 희망으로 새싹이 돋겠지
내 틀 안에도 따뜻해 질거야.

그러면
봄은
진달래 꽃망울처럼
울며, 웃으며
터뜨리며 올거야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냉탕, 온탕, 냉탕, 온탕 ~~~~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베드로는 더 의기소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합니다.

요 21: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집회는 어머니가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섬기는데 오늘 따라 우리 환우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A자매는 얼마 전까지 얼굴에 가득했던 악성 피부 문제가 많이 호전되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은 너무나 검붉어 보였습니다.

B 집사님은 손발 피부가 다 벗겨져서 손에 장갑을 껴는데 찬송을 하는데 그 손으로 손뼉을 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C 성도님은 머리도 더 희어지고 얼굴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

“여러분, 삶이 참 쉽게 안가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쉽게 가지 못하게 하실까요?”

순간 환우들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저와 제 어머니의 삶 속에 다가온 여러 어려움들이 속에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주님의 일 외에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시무하시던 하나로 교회가 분양 사기를 맞으며 오랜 시간 재판장을 했습니다. 또 국세청과의 재판도 했습니다. 남들은 한번만 이런 일에 휘말려도 삶이 망가지지만 어머니는 힘차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진술과 증거도 없는 것들에 의하여 고발당한 재판을 10년을 해 왔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7일 또 어머니의 증거들이 받아 들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래성의 모래가 흘러내리듯 마음을 올리면 다시 흘러내리고 또 올리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 더 항소할 기회가 있지만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곳까지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어머니는 홀로 사역

을 감당하며 하나로 교회 분양 사기 사건, 국세청 사건, 지금은 소중한 사람들 사건까지 재판소를 집처럼 드나 드셨지만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판결을 받는 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당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항상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월 7일은 제가 처음으로 재판정에 찾아갔습니다. 주차 문제로 약 5분정도 늦게 도착했고 이미 소중한 사람들의 판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하나도 받아 주지 않고 10년 전 행정 재판 때 했던 말만 되풀이하며 어머니를 몰아치는 재판정에서 홀로 서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건을 위해서 5년간 모든 재판을 성실히 임하면서 뇌경색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흘깃 쳐다보시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나오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가운 곳에서는 아무도 나의 편이 없었는데, 네가 들어오니 드디어 내 편이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

아무 변화도 없는 지난 10년의 세월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가 바로 그 1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 휘말려 들어갈 때 어머니는 힐링센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확장할 시간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 아무것도 안 들어주잖아.”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검사와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들 중에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는 이가 없고 그냥 낭기소된 것만 읊을 뿐이라는 절망이 계속 머리에 소용돌이 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서 청평으로 가는 길은 암환우들이 가던 길과 항상 겹칩니다. 아산 병원 즈음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아픔이 암환우 만큼은 아니지……”

창밖의 아산 병원을 보다가 우리 환우들이 생각나셨나 봅니다.

“암환우들이나 우리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아니지… 우리 주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실꺼야!!”

운전은 제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운전석에서 운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나 봅니다. 조금 전까지는 눈물도 흘리시고 분노도 내셨는데 다시 혼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선 목요 예배에서 어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힘 있고 행복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냉탕, 온탕, 냉탕, 온탕하시는 어머니를 의아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목요 기도회가 마치고 제 방에서 짐을 챙기시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 보았습니다.

“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짐 챙기며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글 / 이성일 목사

Retreat Center (피정) 오픈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가 제 2 Phase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를 열었습니다.

말씀과 자연, 침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템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침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침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감*중(5일간)

지난 7월말부터 시작한 항암 6차 치료로 인해 식사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내의 권면으로 소사힐에 오게 되었는데, 간식이 없이 메인 식사에 집중해서 맛있는 건강식을 먹다 보니 체중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암 환자로서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진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환우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는가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위중한 암 환자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서*임(5일간)

소사힐에서의 시간이 되돌아보니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설교시간에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와닿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재로 섬겨주셔서 영육이 강건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저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들 기도합니다.

3. 이*화(5일간)

5일간 소사힐에서 지내면서 하루에 두 번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기도하면서 지쳐 있던 마음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에 힘 있게 찬양하고 치유선포문을 통해서 모든 환우가 한마음이 되어 몸의 질병이 다 나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암으로 입맛을 잃었지만 하루 세끼의 정성스러운 건강한 식단으로 몸이 행복하고 건강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충만, 은혜충만을 통한 새침으로 남은 항암치료도 힘있게 이겨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사힐의 확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4. 최*희(5일간)

하나님의 은혜로 소사힐에 입성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암환우들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지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새로운 힘이 생겨나서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눈물이 쏟아졌고 목이 아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성경을 받으면 모든 현실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끼의 건강한 음식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주고 골방에서 외로이 혼자 있을 때와는 달리 여러 환우들이 지나가다가 "몸은 좀 어떠세요?"라고 물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돌보지 못했던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였습니다.

5. 이*준(5일간)

포항보다 좋은 공기과 물, 그리고 음식도 좋을 것들 생각하니, 소중한 사람 힐링센터에 도착하면서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소화가 되지 않고, 다음날에는 구토를 하고 점심 한끼를 먹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미워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은 관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내려놓게 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자 속이 편안해 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자 너무나 감사했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6. 이*칠(6일간)

먼저 소중한 사람들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바른 식습관으로 체질을 바꾸고 면역체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산성 체질로 인해서 당뇨나 혈압이 높았는데, 자연식으로 바꾸어서 알칼리성 체질로 변화시켜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면역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걷기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의 예배는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훈련의 장소로 제공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7. 이*만(5일간)

소중한 사람들에서 드리는 예배가운데 주신 말씀은 "암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는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는데 소망을 두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암이라는 존재 앞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소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8. 심*일(4일간)

소사힐에 들어와서의 첫날은 항암 주사 후유증으로 식사를 거의 먹지 못해서 전신의 기운이 없이 하나도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빈속에 허기가 저서 뭐든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먹으려고 했지만 넘어가지 않아서 영양제로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3일째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다했더니 조금씩 식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금요일, 찜질방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자 개운하면서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말도 많아지고 밥 한 공기씩 먹을 정도로 식욕이 좋아졌습니다. 리트릿센터에서의 짧은 시간이 아쉬웠지만, 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9. 신*순(4일간)

소중한 사람들에 오기 전까지 남편은 거의 3개월간 식사다운 식사를 하지 못해서 체중이 15킬로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항암으로 구토와 통증이 심해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한 발자국 땀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 수 없었기에 큰 결심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리트릿센터에 입소해서 이틀간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쳐서 누워만 있는 남편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환우들의 기도와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남편이 조금씩 식사도 하고 누워있지 않고 걷고 움직이며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소중한 사람들에 인도하셨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감사의 편지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Bui Tan Thua(뜨아)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작업자들은 설을 준비하기 위해 휴식을 취했지만

설이 끝난 후에는 전면 벽을 벽돌로 덮거나 수채로 칠하고 안채 옆 현관에 바닥 다지기 작업 등 나머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축 자재와 인건비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와 목사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설날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회자와 집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봄을 맞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베트남에서...



2024년 2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 확장 헌금 ●

박진미(3,500,000) 소중한사람들(3,000,000) 소중한사람들(1,200,000)

● 목적헌금 ●

유영남(17,000,000) 조은래(6,540,692)

● 천사헌금 ●

김계숙(1,000,000) 박미순(2,000,000) 김연자(1,000,000) 구현주(1,000,000)

● 십일조 ●

권나현(152,000) 노은순사자녀(475,893) 박봉희(230,000) 변영미(500,000) 성혜숙(200,000) 이상일(300,000) 장은미(50,000)
장춘순(170,000) 최영자(130,000) 추연국(380,000)

● 감사헌금 ●

가선미(100,000)	강인석(50,000)	고영배(300,000)	고정형(10,000)	구남진(100,000)	구민정(20,000)	권나현(10,000)
김경애(100,000)	김계숙(200,000)	김기령(200,000)	김나형(50,000)	김덕용(100,000)	김명석(50,000)	김명희(50,000)
김미경(50,000)	김미경(100,000)	김미소(500,000)	김미영(50,000)	김미정(200,000)	김민수(200,000)	김민정(200,000)
김보영(50,000)	김사라(50,000)	김선아(50,000)	김수진(100,000)	김수진(100,000)	김연지(270,000)	김영관(100,000)
김월순(50,000)	김은숙(50,000)	김정규(59,000)	김정화(30,000)	김차우(2,000,000)	김태린,전정*(200,000)	김태희(160,000)
김택호(50,000)	김혜립,김운재(100,000)	김혜영(50,000)	김혜은(20,000)	류병환(100,000)	류성문,김혜선(300,000)	문병숙(20,000)
문창호(500,000)	민정선(80,000)	박광숙(100,000)	박미순(50,000)	박미순(50,000)	박상준(70,000)	박선인(82,928)
박양우(10,000)	박지우(10,000)	박철민(120,000)	박춘자(400,000)	박태희(250,000)	방윤순(50,000)	박연미(20,000)
변영미(200,000)	변요섭(50,000)	서운옥(20,000)	서종열(300,000)	소한태(10,000)	손울선(500,000)	손준식(200,000)
송병희(20,000)	신삼숙(100,000)	신철수(50,000)	심태영(50,000)	안선영(100,000)	양경임(50,000)	연규홍(30,000)
연영희(10,000)	염예석(10,000)	염용환(10,000)	예미마음(10,000)	오정희(100,000)	왕규현(800,000)	원귀아(100,000)
원영분(120,000)	유명희(770,000)	유선이(250,000)	유재기(50,000)	유정옥(400,000)	유조숙(30,000)	윤소영(50,000)
윤연구(100,000)	이남순(200,000)	이든칠(100,000)	이명승(30,000)	이명자(280,000)	이병설(800,000)	이복희(260,000)
이상길(20,000)	이상숙(20,000)	이상일(250,000)	이상일(1,378,549)	이슬기(10,000)	이양복(10,000)	이영선(10,000)
이영환(50,000)	이영훈(100,000)	이옥경(50,000)	이원삼(40,000)	이운섭(150,000)	이운섭(150,000)	이운섭(300,000)
이은지(280,000)	이은희(500,000)	이재훈(100,000)	이재희(600,000)	이정호(30,000)	이종환(50,000)	이중삼(2,000,000)
이중삼(2,000,000)	이하연(200,000)	이혜형(100,000)	이현복(50,000)	이화숙(300,000)	이화영(10,000)	임경남(10,000)
임정은(300,000)	장선영(20,000)	장은미(190,000)	전대진(50,000)	전은유(50,000)	정광진(30,000)	정동익(30,000)
전영선(120,000)	장용자(150,000)	정인택(300,000)	정일금(50,000)	정재수(30,000)	정재운(130,000)	정지윤(150,000)
장현영(700,000)	조경숙(50,000)	조정덕(100,000)	주이레(10,000)	최경순(100,000)	최성희(30,000)	최순자(800,000)
최아람(147,000)	최영자(80,000)	최영희(10,000)	최은선(100,000)	최정미(50,000)	최지숙(100,000)	최혜영(250,000)
추희경(50,000)	허준석(100,000)	한건선(100,000)	한기례(50,000)	한영숙(100,000)	한창식(300,000)	허인숙(20,000)
현성원(30,000)	홍정희(100,000)	황보순(100,000)	황순산(150,000)	황우진(180,000)		

● 기관후원헌금 ●

가락제일교회(100,000) 국회기도회(50,000) 써브웨이터미널점(50,000) 계영산업(10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주)토탈이엔씨(100,000)

● CMS헌금 ●

공은영(30,000)	김명희(30,000)	김성자(20,000)	김영신(30,000)	김운집(30,000)	김인경(50,000)	김준희(2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나지용(15,000)	도주은(100,000)	문옥자(20,000)	문희순(10,000)
민현정(10,000)	박경미(20,000)	박상준(30,000)	박상환(50,000)	박완준(5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손미경(50,000)	양운정(100,000)	오연희(30,000)	유부홍(100,000)	윤성록(50,000)	윤인초(10,000)
윤화숙(30,000)	이금화(10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상립(100,000)	이승은(30,000)	이운섭(50,000)
이인숙(1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혜숙(10,000)	이혜경(5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정미선(50,000)	정여은(5,000)	정은경(10,000)
정의영(30,000)	정일만(1,000,000)	정현명(50,000)	조남남(20,000)	조영실(40,000)	진성권(5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하정민(1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한명희(30,000)	홍금주(10,000)	황지훈(100,000)	AhnAnna(100,000)			

청평힐링센터 2024년 2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현금	23,540,692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040,218
천사현금	5,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713,000
입입조	2,587,893	식자재구입비	11,734,935
감사현금	29,167,477	전기요금	7,967,120
CMS현금	3,225,000	가스요금	951,300
		화재보험료	1,200,000
		CMS사용료	66,000
		KT요금	661,200
		비품구입비(소모품)	527,400
		수리비,공사비	5,200,000
		안전점검비	587,500
		우편발송비	61,150
		급여인건비	12,840,620
		사회보장보험비	1,682,640
		베트남선교비	1,410,000
		차용금 반환	15,000,000
금월 수입 합계	63,521,062	지출 총액	61,643,083
전월 이월금	2,049,362		
차용금			
총 수입 합계	65,570,424	금월 잔액	3,927,341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소나무 현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 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현금입니다.

2024년 02월 씨앗현금 후원 : 김행심(20,000), 이성숙(20,000), 이영훈(100,000), 이해란(300,000), 성찬영(1,000,000), 한중석(200,000)

2024년 02월, 총 2명의 환우에게 1,349,500원을 병원비로 지원하여 환우들이 치료비 부담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심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역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2월 가입자 명단 (4명)

438. 김계숙 439. 박미순 440. 김연자 441. 구현주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욱	2. 최미경	3. 최영자	4. 유재선	5. 이영구	6. 김수영	7. 설홍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혜금	11. 박철홍	12. 정동영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문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갑희	19. 차윤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범	24. 박순화
25. 임광대	26. 한정혁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상	32. 윤철현	33. 전동화	34. 이해란	35. 전미리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장영훈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상익	43. 송영옥	44. 최법락	45. 정수영	46. 정지연	47. 문철자	48. 장한중
49. 정해강	50. 최수자	51. 윤 완	52. 최법락	53. 최유은	54. 최예은	55. 박정애	56. 정동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시재신	60. 허하기
61. 이원경	62. 심 형	63. 이상수	64. 박혜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선미	68. 김영관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양숙	76. 이주열	77. 변현영	78. 배경하	79. 최수연	80. 박자현	81. 이정은	82. 이정은	83. 신성란	84. 정호기
85. 정희창	86. 정예은	87. 박효정	88. 허영중	89. 김미원	90. 신형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수성	94. 김갑희	95. 박철홍	96. 홍명주
97. 김현숙	98. 무 영	99. 유성진	100. 송낙희	101. 권홍중	102. 황보순	103. 이화영	104. 황장아	105. 황현등	106. 민성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유연	110. 계영산업	111. 그레이스 한	112. 이이린 김	113. 이향순	114. 이등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한운희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상희	123. 박유민	124. 이현나	125. 이용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영	129. 조영석	130. 박자현	131. 김연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순	134. 김태연	135. 박혜숙	136. 양수진	137. 심재록	138. 김현숙	139. 오봉자	140. 이태종	141. 김다비다	142. 전자야	143. 조혜숙	144. 이방훈
145. 박혜정	146. 민민나	147. 이근형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최영희	151. 청평힐링	152. 김화련	153. 안정희	154. 김승숙	155. 문예은	156. 임순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엘리	165. 이혜경	166. 이재운	167. 이종민	168. 정동영
169. 김필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옥남	173. 김희성	174. 이원경	175. 박경근	176. 김진임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등구	180. 문종만
181. 강인숙	182. 오정민	183. 오지연	184. 문지수	185. 이다정	186. 이등구	187. 송희종	188. 이하운	189. 정종호	190. 김순애	191. 이종복	192. 이명화
193. 유광현	194. 이등구	195. 이종림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김영숙	199. 윤디요	200. 최금연	201. 김희년	202. 김혜연	203. 장승아	204. 정영신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재원	208. H	209. 박성은	210. 홍지윤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명	214. 황순찬	215. 박미영	216. 유민성
217. 우짜이마누사	218. 이은주	219. 박성은	220. 도영화	221. 박순화	222. 이시은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채원	227. 원적외선원재료	
228. 김여승	229. 김수현	230. 정란숙	231. 김숙희	232. 남원희	233. 남지영	234. 남혜원	235. 김정자	236. 박선순	237. 오준석	238. 노은순	239. 이성혜
240. 최혜령	241. 임계숙	242. 이승재	243. 연규홍	244. 김선경	245. 김선영	246. 손태정	247. 홍수연	248. 이인순	249. 정혜실	250. 한중석	251. 한희숙
252. 김애원	253. 박정희	254. 한경숙	255. 이기열	256. 정은영	257. 이우주	258. 이우경	259. 최영훈	260. 김미옥	261. 김등수	262. 조자영	263. 이선
264. 최영애	265. 장승아	266. 이현미	267. 이주영	268. 이은주	269. 최혜진	270. 손현이	271. 송문희	272. 윤용주	273. 변영록	274. 최명자	275. 김성근
276. 김등완	277. 김주희	278. 이가경	279. 신현구	280. 이현미	281. 민원홍	282. 이은주	283. 민노영	284. 이주영	285. 김승정	286. 홍부내	287. 조범호
288. 정영자	289. 이유승	290. 조어나	291. 민현정	292. 박용천	293. 윤주중	294. 장승아	295. 조범호	296. 김명희	297. 홍순경	298. 이성림	299. 김무순
300. 양호경	301. 김주형	302. 권의자	303. 정영애	304. 조어나	305. 김옥경	306. CHOMEARIN	307. 각진관	308. 공은경로사	309. 권유승	310. 방원	311. 남기혁
312. 김소현	313. 윤종문	314. 박재연	315. 이하리	316. 민요한	317. 최홍석	318. 정복숙	319. 김사진	20. 최봉관	321. 이복순	322. 류승희	323. 김영혜
324. 이생아	325. 750204	326. 김인주	327. 김성규	328. 최혜령	329. 이약선	330. 이경옥	331. 민옥선	332. 장향자	333. 이은경	334. 유성진	335. 이상운
336. 최영애	337. 유지혜	338. 채혜순	339. 전성훈	340. 정찬영	341. 김은정	342. 윤은혜	343. 맹은자	344. 정현지	345. 이호은	346. 김진숙	347. 정영신
348. 체지영	349. 양호정	350. 유성진	351. 김영남	352. 유철우	353. 유준오	354. 유현주	355. 윤종옥	356. 최유은	357. 전나라	358. 허창만	359. 한송희
360. 도영화	361. 서정민	362. 정영신	363. 오정홍	364. 정찬영	365. 권등준	366. 박지영	367. 장춘순	368. 강신금	369. 전영신	370. 송병석	371. 장향자
372. 정민숙	373. 최혜령	374. 서혜원	375. 노이향주	376. 강인석	377. 최영숙	378. ㈜도탈이앤씨	379. 후원금	380. 강민옥	381. 강진옥	382. 강현옥	383. 임지영
384. 빛과소금의교회	385. 정영신	387. 김태희	388. 박상준	389. 유등호	390. 박봉희	391. 박진미	392. 심규진	393. 김계석(오크성가대)	394. 이윤심	395. 서대원	
396. 이정현	397. 김순옥	398. 정현영	399. 도영화	400. 김영희	401. 변영록	402. 이화숙	403. 김미자	404. 김순하	405. 이병실	406. CUIVLEL	407. 강연구
408. 강정화	409. 이경재	410. 민수희	411. 조규철	412. 윤경일	413. 오영석	414. 이종남	415. 이지혜	416. 이현순	418. 김영희	419. 조미경	420. 유문재
421. 김윤순	422. 박정철	423. 황우건	424. 서종필	425. 신형수	426. 이성희	427. 박수정	428. 김숙희	429. 정영진	430. 강금녀	431. 장은미	432. 박춘자
433. 박경철	434. 임주찬	435. 최승순	436. 김연자	437. 장향자	438. 김계숙	439. 박미순	440. 김연자	441. 구현주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현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문*호님 (뇌장암) - 뇌장암은 크기가 그대로인데 배꼽 밑에 암 병변이 있어 3월21일 방사선종양학과 진료가 있고 폐쪽에 안보이던 것이 보여 3월26일 입원하여 조직검사 예정이며, 바른 진단을 통해 배와 등의 통증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2. 유*희님 (유방암 3기) - 항호르몬제 아로마신을 복용중인데 부작용 없고, 치료되고 재발이 많이 완치될 수 있도록,
3. 이*철님 (위암 3기) - 2월9일, 8차례의 항암치료를 마치고 3월20일 CT검사, 4월2일 진료와 치료 일정이 인데 깨끗이 고쳐주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4. 홍*산님 (대장암, 간전이) - 기존의 항암제가 내성이 생겨 2월21일 새로운 항암제로 바뀌어서 2차 항암을 하고, 3월13일에 2차 항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부작용 없이 그리고 내성이 생기지 않고 항암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5. 오*주님 (난소암) - 난소암 재발로 6차례 치료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3월13일, CT검사와 3월19일 혈액검사와 진료 예정인데, 모든 검사와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6. 이*지님 (근상식육종) - 자외선 치료로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하는데 모든 암세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으며, 2차 항암 일정이 3월13-15일 예정입니다.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바라며, 조혈모세포이식 일정이 4월22일로 정해졌고, 4월15일 무균실 입원 예정인데 저와 공여자의 모든 이식 과정이 순조로이 잘 이루어지도록,
7. 최*주님 (당도암 4기) - 23년 3월6일 당도암 말기판정을 받고 간으로 전이되어 10개월간 항암치료를 하였지만 효과가 없고 부작용으로 인해 지금은 분당차병원에서 관리하면서 임상실험중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복수를 받고 있는데 잘 견디게 해주시고, 3월11일 CT검사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반드시 치유 되기를,
8. 단*화님 (당도암) - 유방암을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길,
9. 허*영님 (유방암 림프전이) - 원치들 통해 선교의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0. 박*준님 (전립선암 4기) 양쪽 골반뼈 전이) - 2월21일 심정맥과 부장맥 검사결과 완전히 사라졌다 하며, 7월에 pet-ct, mi, 폐기능 검사후 수술 예정인데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이 고쳐주셨음을 믿으며,
11. 장*영님 (협착염) - 급성협착염으로 작년 2월부터 항암중이며 총12차례의 치료과정 중, 현재7번까지 마쳤습니다. 남은 치료과정도 부작용과 재발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12. 김*숙님 (유방암) - 2월6일 흉부, 복부 CT 검사 결과 0.7cm 정도 되는 암은 깨끗이 없어졌고 주변의 모래알만한 암세포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한 니움 주실 줄 믿으며,
13. 김*자님 (당도암 재발) 자궁경부, 질 직장전이) - 2월20일 CT결과 직장쪽의 암이 커졌다고 하여 신장면역항암을 시작했으며 효과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고인만큼 기대치가 크며, 전이 가 없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동중조절에 도움이 된다 하기에 3월4일 1차 방사선을 합니다. 부작용과 통증이 없어지고 완전한 치유가 되기를,
14. 장*미님 (유방암, 다발성 폐전이) - 항암제를 바꾸고 3차례 진행했으며 투약 후 종양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통증도 줄었으며 내성 없이 암세포가 다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15. 김*수님 (간암, 복막암) - 3월4일 10차 항암을 합니다. 암이 사멸될 때까지 항암은 지속될 예정이며, 완전 치유할 연기를 소망합니다.
16. 김*희님 (직장암) - 치료로 인한 통증으로 잘 누워있지 못하여 잠을 잘 못자며, 항암 부작용으로 발과 다리에 부종이 심합니다. 편안히 놓고, 쉴 수 있게 되며, 허리가 굽다공증으로 인해 힘들고 척추에 압박감들이 4개나 있는데 뼈가 든든해지고 회복되기를,
17. 장*금님 (유방암) - 소사혈에서 완전한 치유의 기적이 있기를,
18. 이*숙님 (유방암,간,뼈전이) - 모든암에서 완전한 치유할 받기를,
19. 이*상님 (폐암) - 검사 결과 내성이 생겨 항암제를 바꾸어야 하며 임상으로 권유받고 적응 가능한 신제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20. 이*자님 (유방암전이) 갑상선암) - 갑상선수술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받았습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몸이 완전하게 고침 받기를,
21. 박*민님 (뇌종양) - 3월4일 2차 항암사작 했는데 뇌종양, 낭종이 깨끗하게 치유할 받고, 오른쪽 팔, 다리 힘이 생기고 정상적으로 걷고, 뛰고 달리 수 있도록,
22. 홍*진님 (유방암, 간전이) - 첫 평가검사서에서 전이 없이 유방, 간, 림프 종양의 크기가 감소함으로 약의 효과가 보기에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치료중에 내성과 전이 없이 완전히 고침 받기를,
23. 서*열님 (폐암4기, 뇌막전이) - 21년 10월 폐암 수술을 하였으나 작년 10월 뇌막에 전이된 후 부작용 없이 먹는 표적항암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4월26일 검사 결과들 통해 완전한데 판정으로 라파 여호와의 찬양할 수 있기를,
24. 홍*현님 (폐암 3기) - 23년10월 식도암, 폐암3기 선고 후, 12월14일 식도암 수술을 마쳤으나 폐암은 기면제와 림프절에 집중되어 3차례 항암 후 수술여부들 판단하기로 하였고 1,2차 항암 후 면역, 표적, 독소항암제 부작용으로 2월6일 3차 항암 후에는 일체 진통제를 끊고 운동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2월27일부터 폐내시경, 3월중 CT, 조형제검사, 폐검사후 암의 크기가 수술 범위내에 들 경우 3월2일 수술할 예정이며, 잘 치유 될 수 있도록,
25. 이*남님 (난소암,림프전이) - 22년 두명세포암이 난소에서 림프로 전이되어 항암을 했으나 변화가 없었으며 항암 이후 장기 손상이 심해 현재는 경과들 지켜보려고 한 상태이며 별다른 크기 변화는 없습니다. 4월6일 CT검사예정이며 좋은 결과 있기를,
26. 구*서님 (뇌장암) - 선 항암과 수술 그리고 예방항암까지 모든 순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회복되어 재발과 전이 없기를 바라며, 항암 후유증으로 손발 저림과 이명 또한 치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중보자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 환우들이 독수리 날개 치트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삶의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목요기도회





▲ 김밥 만들어요~



▲ 눈내리는 청평



▲ 더덕다듬기



▲ 명성교회 봉사팀방문



▲ 밥이보약



▲ 산에서 먹는 딸기맛~



▲ 산행으로 건강을~



▲ 설산의 정상에서..



▲ 성경공독시상식



▲ 세남자



▲ 야외여배



▲ 자연을 거닐며...



▲ 전도복밭 10기



▲ 뽕질방에서의 여유로움



▲ 청평5공주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 전도복 200여점 ▲ 고구마 200여kg ▲ 과일-신원선 ▲ 과일-송이원 ▲ 기증액 100여만원 ▲ 말두-김미원 ▲ 말두-김미원 ▲ 목구멍보온 ▲ 시유-박성민 ▲ 목구멍보온 ▲ 배나선-신원선 ▲ 커피-김미원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저희가 대접해 드리는 밥만으로는 그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분들께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소망을 드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드리며 전도지를 건네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2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에는 3일 분당삼성교회 6일, 27일 이대부속 초등학교 성경 통독팀 8일 변열교회 13일 조이어스교회 15일 동광교회 17일 함께올래 2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23일 강동 온누리교회 24일 모래내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강소영, 권경희, 김성수, 김현숙, 김진숙, 김나형, 김영옥, 김인자, 김인숙, 송경옥, 이영훈, 이윤아, 이정자, 이소영, 유성준, 유성현, 유성원, 유진상, 정의영, 최경희, 최금련, 최선희, 한현희, 황귀용, 한에스더, 황귀용, 황보혜, 김용수, 강명석, 송기승, 허청만, 인정민, 이지영, 한송희, 임매자,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오윤순, 진승연, 김은경 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김은경, 송기승, 채정주, 강명석)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유정옥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친 삶의 어려움속에서도 노숙인들을 위해 한 가지, 두 가지 정성스럽게 만들고 다듬고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물품을 매일같이 나누어 주는 나눔속에 소중한사람들 모든 이들이 하나될 수 있어서 행복한 1월이었습니다.

*2월 117일 (토요일) 22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24일 (토요일) 20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

*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으로 한해의 마지막을 마음 따스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7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7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998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 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남성 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김진수, 이엘리, 문창호, 박성준, 이화숙, 정현명, 이병설, 이원상, 이중삼, 이명자, 박철민, 황우진, 유명희, 이은지, 이윤섭, 김연자, 김계숙, 황순산, 서종열, 황규현, 장은미, 정인택, 김민수, 김명희, 정일금, 단선화, 하나영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6.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숙,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몽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신형진님이 9차까지 맞은 스피라자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차 이후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피라자 주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신형진이 다시 스피라자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앤드류 서 구명을 위해

19살에 폰탁 감옥소에 들어가 50세가 되어 출감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앤드류 서는 80년을 옥중생활을 해야 하는데 30년을 모범수로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모범수여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앤드류 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감한 것입니다. 앤드류 서의 집과 생필품과 직장과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여자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아이티

유엔이 무정부 상태인 최빈국 아이티에 최대 5년 단속이 정부를 상대로 한 무장봉기를 촉구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인 아이티 최대 5년 단속 지미 셰리지는 지난 19일 "우리는 아이티에 정부를 어떻게든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싸움은 무기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에서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뒤 발생한 권력 공백으로 사실상 정단들이 점령된 상태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무장 정단들은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최대 90%를 점령하고 살인, 납치,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단 폭력으로 집을 잃은 아이티인들이 20만 명에 이른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정단들이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식량 공급마저 동제한 탓에 수백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티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 사회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국제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현재 아이티에는 미국이 정단 폭력과 연료난에 따른 반정부 시위, 전염병 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다국적군 파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의 호응을 전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불안이 수개월째 가중되는 가운데 아이티에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마저 겹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티 인구의 거의 절반인 470여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국적군 파견에 어떤 나라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티 파병을 꺼리는 것은 군대 파견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한 반면 위험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국적군을 파견해 정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도 수십 년간 정치-경제 엘리트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은 정단을 뿌리 뽑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마음이 이어 귀동마을에 지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미안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안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안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안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전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단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십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서 수많은 미안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벌써 발 빠른 산수유, 개나리, 벚꽃이 피었습니다.
 눈 가는 곳마다 꽃으로 흐드러집니다.
 우리 가슴속에도 봄이 옵니다.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쉼 내음, 냉이, 달래...
 이들을 밟을까 우리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 집니다.

2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목적 헌금을 보내주신 조은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동광교회 청년부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솔메이에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김용수 송연숙, 김영진 손미나, 이성웅 이한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구명신, 김가람, 김갑희, 김영림, 김영선, 김태희, 노미경, 노아, 도문식, 문영숙, 박경애, 박문희, 박민희, 박수현, 박철규, 박혜수, 백주현, 송희종, 신명순, 신형진, 신혜영, 안윤순, 엄춘란, 연구흠, 유영재, 유정옥, 이고은, 이은주, 이주희, 이태희, 이황희, 임나리, 임맹자, 장선화, 장지호, 전영섭, 정미주, 조미영, 채정주, 탁관영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 헌금을 보내주신 (사)온누리약국 복지회, 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갑)안양감리교회, (기성)아현성결교회 (예정) 경주제일교회, 영락교회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김명수, 신현우, 주영훈, 이정대, 유진상 황규용, 이성웅 이한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조경숙, 신혜영, 한종석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헌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 *심터 생활인들은 취직을 하여 직장을 얻고 저축을 하며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력무력 자라고 있습니다.
-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피리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김진수, 이엘리, 문창호, 박상준, 이화숙, 정현명, 이병설, 이원상, 이종삼, 이명자, 박철민, 황우진, 유명희, 이은지, 이운섭, 김연자, 김계숙 황순산, 서종열, 황규현, 장은미, 정인택, 김민수, 김명희, 정일금, 단선화, 하나영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희균, 조규철, 이민규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드림

2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수량	저고
2/2	푸드뱅크	빵부식류팩	4/1박스	2/3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4/11박스	0/00박스
2/5	푸드뱅크	빵/도넛츠	4/1박스	2/6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4/11박스	0/0박스
2/8	푸드뱅크	빵/케이크	4/1박스	2/9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4/11박스	0/0박스
2/8	푸드뱅크	바나나	10박스	2/9-2/1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각 3/3박스	0박스
2/12	조이어스바울-식권사	한우족백국떡만두	1/11박스	2/13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11박스	0/00박스
2/13	푸드뱅크	빵	6박스	2/14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박스	3박스
				2/15			3박스	0박스
2/13	조이어스김명숙권사	떡	1박스	2/14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1박스	0박스
2/16	푸드뱅크	빵/떡/도넛츠/부식류	1/13/4박스	2/17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1/13/4박스	0/0/0/0박스
2/19	푸드뱅크	빵/도넛츠	4/2박스	2/20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4/2박스	0/0박스
2/23	푸드뱅크	빵/부식류	3/1박스	2/24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1박스	0/0박스
2/24	선한목자교회 라파엘년부	쓰레받기세트	2세트	2/25	사무실, 상담실 사용	거리노숙인	2세트	0세트
2/26	푸드뱅크	빵/도넛츠	3/1박스	2/27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1박스	0/0박스



▲ 떡 김명숙님 ▲ 한우사금국 박은숙님 ▲ 소고기-해니브러님 ▲ 청소도구세트-선한목자교회 라파엘년부

2024년 02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2024년 02월 01일 ~ 02월 29일까지)

●십일조 헌금●

강덕희(130,000)	구명신(200,000)	김가람(500,000)	김갑희(392,000)	김영림(50,000)	김영선(50,000)
김영진,손미나(1,65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노미경(500,000)	노아(1,000,000)	도문식(500,000)	문영숙(200,000)
박경애(1,000,000)	박문희(50,000)	박민희(50,000)	박수현(200,000)	박철규(410,000)	박혜수(1,000,000)
백주현(250,000)	송희종(500,000)	신명순(200,000)	신형진(450,000)	신혜영(250,000)	안윤순(300,000)
엄춘란(600,000)	연규흔(200,000)	유영재(350,000)	유정옥(200,000)	이고은(584,000)	이성음,이한나(375,000)
이은주(4,200,000)	이주희(600,000)	이태희(50,000)	이황희(50,000)	임나리(600,000)	임행자(260,000)
장선화(200,000)	장지호(50,000)	전영섭(380,000)	정미주(119,844)	조미영(500,000)	채정주(150,000)
탁란영(490,000)					

●목적 헌금●

동광교회 청년부(3,500,000) (취탁솔메이(5,000,000))

●개인 감사헌금●

강덕희(20,000)	강성희(20,000)	강윤옥(10,000)	권경연(90,000)	급식후원(10,000)	김갑희(2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남미(50,000)	김대식(10,000)	김도영(30,000)	김도형(130,000)
김동민(10,000)	김명옥(70,000)	김미선(50,000)	김미정(20,000)	김번옥(50,000)	김선아(100,000)
김선희(50,000)	김성희(30,000)	김영림(80,000)	김영미(50,000)	김영선(10,000)	김예은(5,000)
김외숙(100,000)	김정훈(10,000)	김종명(100,000)	김진환(100,000)	김태세(40,000)	김태희(8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20,000)	김현서(20,000)	김희정(50,000)	나종숙(70,000)	노숙자(30,000)
노원국(20,000)	류한금(10,000)	박금용(100,000)	박대수(20,000)	박문희(40,000)	박성용(100,000)
박성은(100,000)	박세준(50,000)	박인혜(40,000)	박정애(30,000)	박정환(20,000)	배윤희(10,000)
배희영(10,000)	백주현(29,000)	변경자(20,000)	서보람(100,000)	서정민(50,000)	석동신(40,000)
성명숙,이경민(50,000)	소진경(30,000)	송계순(30,000)	심요열(10,000)	심홍보(10,000)	안형욱(100,000)
양복길(13,000)	엄은숙(30,000)	연규흔(10,000)	오경남(20,000)	오선향(100,000)	오지석(100,000)
유순애(30,000)	유재학(120,000)	유정옥(10,000)	유진상, 황귀용(200,000)	윤재운(20,000)	윤화(30,000)
이나예(10,000)	이상훈(10,000)	이선아(100,000)	이성음,이한나(500,000)	이성혜(5,000)	이순란(10,000)
이연옥(10,000)	이영숙(20,000)	이원섭(50,000)	이윤남(30,000)	이원옥(100,000)	이윤정(100,000)
이인영(50,000)	이재성(50,000)	이재욱(100,000)	이경대(180,000)	이정선(150,000)	이정은(20,000)
이주희(110,000)	이지은(10,000)	이춘(100,000)	이태승(15,000)	이태희(20,000)	이현경(30,000)
이황희(20,000)	임행자(80,000)	임윤엽(120,000)	장광욱,장자인(50,000)	장란숙(100,000)	장종숙(120,000)
전혜영(10,000)	정영애(20,000)	정윤(50,000)	정은수(10,000)	정일권(18,000)	정주연(50,000)
정태현(10,000)	정혜영(50,000)	조미영(100,000)	조민화(20,000)	조영미(30,000)	조을남(10,000)
조진영(50,000)	최경숙(10,000)	최성은(10,000)	최진복(20,000)	최진자(100,000)	최진자(100,000)
한경숙(10,000)	한송희(100,000)	허해진(5,000)	홍복실(100,000)	황보성(100,000)	황보혜(50,000)

●교회 감사헌금●

(기감)뱌델교회(100,000) (기감)선재중앙교회(100,000) (기감)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성)식도성결교회(50,000) (기성)아현성결교회(200,000) (예정)경주제일교회(200,000) (예정)문호교회(100,000) (예정)영락교회(300,000)
 (예정)하나로교회(1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3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기관 감사헌금●

(사)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미라나타(30,000) 사랑의센터(50,000) 엔씨마수학학원(100,000) 예슈아(30,000)
 조이어스커뮤니티(30,000) (취)컨퍼테크(100,000) (취)토브디자인(100,000) SKY(50,000)

●미얀마고아 선교헌금●

글로벌비즈니스(40,000)	곽상미(40,000)	김명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진성(40,000)	안성훈,송명옥(40,000)	윤혜경(40,000)	이성자(40,000)
이성자(40,000)	이현미(40,000)	이현희(10,000)	이혜란(40,000)	정영애(40,000)	조갑동(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중국고아 선교헌금●

박선주(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조춘식(40,000)
-------------	-------------	-------------	-------------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	-------------	-------------

●북한고아 선교헌금●

글로벌비즈니스(4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영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명(5,000)	박승호(50,000)	석영란(20,000)	안성미(3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복자(100,000)	이순주(20,000)	이은경(30,000)	이현희(10,000)	이혜란(4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북한선교 헌금●

(취)엔피이브(50,000)	김광훈,김미영(50,000)	김지혜(30,000)	남기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이은혜(50,000)	이혜란(50,000)	장승아(50,000)	장은별(50,000)	전혜봉(20,000)	정유진(30,000)
지선옥(20,000)	최소영(50,000)				

●베트남선교 헌금●

강연구(40,000)	박진희(40,000)
-------------	-------------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박종화)(40,000)	갯피플웨딩(40,000)	갯피플웨딩(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손향(40,000)	김상진,손향(40,000)	박선인(40,000)	박선주(40,000)	새산성교회(40,000)	손향(40,000)
송현주(40,000)	송현주(40,000)	안서영,송명옥(40,000)	윤혜경(40,000)	이재혁(40,000)	이찬의(40,000)
이혜란(40,000)	장요셉,손향(40,000)	장정문(40,000)	조경희(40,000)	채신혜(20,000)	최춘호(80,000)
하성화(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50,000)		홍정희(40,000)	홍정희(40,000)	

●아이티 선교헌금●

김수전,이준자(100,000)	무명(300,000)	박영미(35,000)	박종래,최임선(20,000)	박혜진(10,000)	성찬영(50,000)
신현정(30,000)	신혜영(250,000)	이정희(30,000)	임영신(4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춘호(30,000)	한종석(200,000)		



(주)엔페이브(50,000)	(주)장세에스엔티(50,000)	갯피플웨딩(50,000)	강금내(30,000)	강도숙(10,000)	강연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안순(50,000)	강일화(20,000)
강현미(20,000)	강화란(10,000)	계영산업(50,000)	계용돈(30,000)	고건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희(1,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병훈(30,000)	권유미(20,000)	권정아(10,000)	권태준(10,000)	권혁천(10,000)	글로벌비즈니스(50,000)	길벗여행사(100,000)
김상원(1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균(50,000)	김동만(50,000)	김명수(30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희(10,000)	김미희(300,000)	김미희(300,000)
김미희(300,000)	김민경(30,000)	김베드로(1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명(100,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경(20,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수현(5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승훈(3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옥(20,000)	김영민(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오례(10,000)	김옥겸(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자(5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재동(30,000)
김정숙(10,000)	김정화(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애(20,000)	김지아(10,000)
김지현(3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춘원(5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행은(10,000)
김향순(5,000)	김현미(10,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숙(50,000)	김호년(30,000)
김효정(20,000)	김효진(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노은실(10,000)	노한준(30,000)	노현자(20,000)	도문식(30,000)	디자인아시아(10,000)	디자인아시아(10,000)	라미영(5,000)
류명순(5,000)	류승환(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명희(10,000)	박문희(2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영(3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시용(15,000)	박연정(10,000)	박연주(10,000)	박영수(10,000)	박영자(2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10,000)	박진선(10,000)	박진철(10,000)	박찬국(3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현숙(100,000)	박현숙(5,000)	박현주(10,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윤(10,000)	백규진(20,000)	백창미(5,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상숙(20,000)	서영숙(10,000)	서정국(50,000)	서지연(10,000)	서혜원(2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남시청신우회(30,000)	성준호(10,000)	손경석(5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신승우(50,000)	신명주(10,000)	신은순(10,000)	신은미(30,000)	신은미(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신희진(20,000)	씨엠지코리아(10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효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익문교회(30,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여예민(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예수사랑교회(3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민아(10,000)	유복희(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정모(20,000)	유준서(5,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두원(1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예준(10,000)	윤완(1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홍찬(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선(1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진(10,000)	이공미(100,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갑성(30,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미경(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산록(20,000)	이삼총(5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성준(1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승연(3,000)	이예연(10,000)	이예희(1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영희(20,000)	이예원(10,000)
이원경(10,000)	이원우(3,000)	이유진(30,000)	이윤미(10,000)	이윤희(1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의신(10,000)	이의화(10,000)	이인용(20,000)	이재름,박안순(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은(10,000)	이제호(10,000)	이종수(10,000)	이종수(40,000)	이주아(20,000)	이준욱(110,000)	이지훈(50,000)
이찬의(50,000)	이창식(2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홍종(3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산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문심(10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윤정(1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금자(30,000)	전애영(20,000)
전재국(10,000)	전하명(45,000)	전하영(65,000)	전하영(155,000)	전혜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민용,김우미(50,000)	정성분(10,000)
정애리(20,000)	정영호(30,000)	정우찬(30,000)	정유정(20,000)	정윤경(10,000)	정운호(10,000)	정은희(10,000)
정이랑(10,000)	정인철(50,000)	정재겸(5,000)	정재이(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혜진(10,000)
조경찬(10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원(10,000)	조근경(10,000)	조미숙(10,000)	조미원(60,000)
조성립(10,000)	조성환(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20,000)
조주상(20,000)	조춘호(5,000)	조현미(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주찬양교회(50,000)	지선옥(12,000)
진미재(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영(10,000)	채지영(30,000)	전민정(10,000)
전주리(10,000)	전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익(10,000)	최경선(10,000)	최귀영(10,000)	최금련(3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명실(5,000)	최은숙(10,000)	최완희(100,000)	최윤구(2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정순(50,000)	최주덕(20,000)	최춘삼(10,000)	최하나(10,000)
최현종(10,000)	최혜경(100,000)	최효선(3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동기(50,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한혜민(2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홍성경(30,000)	홍순경(20,000)	홍신숙(100,000)	홍영희(5,000)	홍을희(20,000)	홍재필(20,000)	홍정희(2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황희찬(20,000)